

대전 동구 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했다

대전 동구는 2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추동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와 리기다소나무림 갱신 대상지에 새로운 수목을 식재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건강한 숲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희조 동구청장과 오관영 동구의회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기업 및 단체,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양벚나무와 편백나무 등 500여 주를 직접 식재하며 산림의 소중함과 보전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오늘 하루 당신이 구정장입니다'로 위촉된 녹지환경보안야 일일구청장 노현철, 김지연 씨도 함께해 동구의 산림·녹지 정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구는 이번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재선충 피해지 산림복원을 추진하고, 탄소흡수원 확충과 구민 참여를 통한 녹색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희조 청장은 "나무심기가 훼손된 산림을 건강할 숲으로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청주동물원, 야생동물 보호

동물보존관 문연다

청주동물원은 천연기념물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보호와 재활을 위해 동물원 내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을 조성하고 2일 개소했다.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치료, 재활, 보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다치거나 구조된 개체를 치료하고 재활훈련을 통해 다시 자연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대표적인 천연기념물 맹금류인 독수리와 수리부엉이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보호와 재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약 1,730㎡ 규모로 건립됐으며 천연기념물 동물 방사 훈련장, 이동 진료실, 의료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총사업비 20억7천만원(국비 14.5억, 도비 3.1억, 시비 3.1억)이 투입됐다.

청주시는 이번 시설 개소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생태 보전과 환경 교육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주동물원 관계자는 "동물보존관은 단순한 관람시설을 넘어 야생동물 보존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천연기념물 야생동물의 보호와 야생 복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자영업자와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충남 835억 원 규모 민생경제 패키지

충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위기 극복·경영 안정·경쟁력 강화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비 증가 등으로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추경예산 확정 전에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지원 5개 사업 587.2억 원, △소상공인 지원 4개 사업 247.9억 원으로 9개 사업에 총사업비 835.1억 원을 투입하여 정

책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을 46일을 더 연장(5.29일 까지)하고,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및 1년간 3% 이자 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당 최대 1천7백만 원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10.6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최대 300kW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자부담(40%)에 대해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여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부담을 완화한다.

이현진 기자

특히, 서산의 석유화학 위기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을 20억 원 추가 확보(총 60억 원)하고, 신청 기한을 17일 연장(4.17일 까지)한다.

무엇보다, 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69.8억 원 규모의 경영개선 및 재정업 지원에 나선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660만원, 휴·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재정업 자금 8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상상 배달앱 배달료 지원을 지난해 1.8억 원 수준에서 46.6억 원으로 대폭(약 26배 증) 늘린다.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총 57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넓혀 정부 지원 외 자부담분의 20~50%를 추가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전자상거래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운영하여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온라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김태흠 도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연물산업 고도화·다각화 투트랙

충북도 신제품 개발 및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기업 모집

충북도가 도내 천연물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천연물 신제품 개발 지원' 및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충북의 전략 산업인 천연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 12개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천연물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국내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등 신제품 창출을 돕는다. 선정된 6개 기업은 기능성 원료 및 신제품 개발, 소재 표준화, 효능 평가, 시제품 완성을 위한 공정 개선 등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천연물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은 기존 식품, 화장품, 의약품 분야 기업이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6개 기업에는 기

술 이전(특히 도입), 인허가 및 인증 획득,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시장조사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천연물 기반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2,1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 모집은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까지 바이오선 또는 전담기관인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기업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의 서류 검토와 발표 평가를 거쳐 5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노은영 과장은 "도내 천연물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충북을 대한민국 천연물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청소년 통학환경 방법 CCTV 설치



대전 중구는 청소년 범죄 예방 등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문화1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유전2동과 문화1동을 연결하는 호남선 철도 하부의 좁은 지하통로로, 평소 동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주요 등하굣길로 이용되는 장소이다. 하지만 주변이 어둡고 외진 탓에 범죄 노출 우려가 크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구는 민관이 함께 대상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현장 맞춤형 방범 시설을 마련했다.

이번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비상벨을 함께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CCTV 관제센터 요원과 통화할 수 있고,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2025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 고용·산업위aggi지역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여 별도 신청이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채봉 기자

양방향 통행로 추가 개방, 4일 BRT 정상화

대전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통제에 따른 교통 혼잡 최소화 대책 발표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양방향 통행로 추가 개방, 4일 BRT 정상화 관련,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통 소통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전면 통제는 지난달 30일, 원촌육교 램프 구간 보강도양벽에서 심각한 '배부름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시작됐다. 시는 2025년 7월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양벽 붕괴 사고의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대형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비판이 있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고 전격적인 차단 조치를 감행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제로 출퇴근길 정체가 극심해지자, 시는 건설도로 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밤샘 회의를 거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4시간 비상 공사 체계를 가동해 4월 4일부터 상행(신탄진 방향) 본선 1차로를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그동안 운행이 중단됐던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정상화되어 시민들의 이동권이 일정 부분 회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월 3일부터는 KBS 대전 방송국에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구간의 양방향 통행로를 추가 개방해 우회 도로의 과부하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단순한 도로 개통을 넘어, 인근 지역 전체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도 병행한다.

차량이 몰리는 대덕대로와 한밭대로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4월 30일까지 유예해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용량을 확보하고, 대덕대로(큰마을4가~도동3가)와 엑스포로(원촌3가~도동3가) 구간 등의 신호 주기를 최대 20초까지 연장해 교통 정체 구간의 소통을 돕는다.

또한, 주요 교차로 38개소에 교통경

찰과 모범운전자 등 141명의 인력을 집중 배치해 꼬리물기 방지 및 현장 소통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우회로를 안내 중이며, 14개소의 도로전광판(VMS) 및 버스정류장(BRT) 우회로 안내송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시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박민범 철도건설국장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양벽 붕괴는 찰나의 순간에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긴급하게 전면 통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4월 말 완공 목표이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구리시

2026 버스킹 | 퍼레이드 | 체험 부스 | 와구리 굿즈 이벤트 | 거리 전시

장자호수 빛꽃마실

2026. 4. 11. (토) ~ 4. 18. (토)

장자대로 일원(장자호수공원)

4.11. (토)

걷기행사 / 빛꽃버스킹
거리 농악 퍼레이드
개막공연 / 부스운영

4.12. (일)

백파이프&폴크댄스 퍼레이드
가곡의 밤 콘서트
부스운영

신난당!

와~ 이쁘다!

문의 | 문화예술과 ☎ 031-550-2485